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다시 이야기하고,
풀어 설명하고,
오늘을 위하여.

GOOD NEWS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다시 이야기하고, 풀어 설명하고, 오늘을 위하여.

Hans-Jörg Ronsdorf

하늘이 높은 것같이

책 소개

이 책은 에베소서를 자신의 말로 풀어 쓴 것, 곧 설명을 곁들여 다시 들려준 것입니다. 분량은 고전적이고 원문에 충실한 성경 번역에 담긴 원래 성경 본문의 약 세 배입니다. 이 글은 성경 본문을 대신하거나 더 낮게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더 잘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독일어판 제1판 2019년 10월

© Hans-Jörg Ronsdorf - 모든 권리 보유

www.hans-joerg-ronsdorf.de

Albis 6 ½

87477 Sulzberg

hj-ronsdorf@t-online.de

독일어판 ISBN 978-3-9820715-2-7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 들어가는 말

제가 이 바울 서신에 붙인 표어 “하늘이 높은 것같이”는 빈말이 아닙니다. 높은 산에서 사방으로 지평선까지 내다볼 수 있듯이, 이 편지는 모든 방향으로 열린 전망대와 같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든,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지나간 영원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곧 그분의 새 세상으로 이끄는 비할 데 없는 은혜입니다.** 이 편지를 단순히 읽으면, 몇 번이고 멈추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다.

다른 본문을 깎아내리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편지를 신약성경의 정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편지에 반한 사람은 저만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이 편지를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 서신의 면류관”, “가장 신적인 작품”, “모든 편지 가운데 가장 왕다운 편지”, “이 편지는 순수한 음악이다 ... 여기서 우리가 읽는 것은 노래하는 진리, 음악으로 옮겨진 교리다”. “에베소서는 지금까지 기록된 문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다.”

이 편지는 다른 어떤 편지보다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기원과 지평, 그 충만함과 영향을 잘 묘사합니다. 그 신앙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닳을 내리고 있습니다. 중심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행위가 있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으로 하나를 만드십니다. 그분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땅 위에 있는 그분의 집, 그분이 거하시는 곳이 됩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됩니다. 편지의 후반부는 새 사람의 삶과 일상을 주제로 다룹니다. 삶의 온갖 관계 속에서.

편지의 기록 시기와 수신자

여기서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다루는 좋은 책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 편지는 기원후 62년에 바울이 썼습니다. 감옥에서. 소아시아의 교회들, 곧 에베소를 수도로 하는 로마의 아시아 속주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인구 20만 명이 넘는, 소아시아의 3대 대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니다! 지리적 위치와 무역로 덕분에 경제와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민족이 뒤섞이는 용광로였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교와 제의도 함께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작은 가정 우상이 있었고, 날마다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점쟁이, 주술 제사장, 신탁 해석자는 존중받는 업종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도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한 신, 더 정확히 말하면 한 여신이 모든 것 위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사냥과 처녀성의 여신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는 제우스의 딸이자 아폴론의 쌍둥이 누이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녀를 디아나라고 불렀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여자들과 소녀들을, 특히 출산할 때 보호해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충성을 요구했고, 사람들은 고대의 가장 큰 신전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의 신전에서 그 충성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여신이 에베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몸소 겪었습니다. 바울은 그 도시와 지역에서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그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고난도 겪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읽어 보십시오.

에베소의 크세노폰(Xenophon von Ephesus)은 고대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연애 소설 가운데 하나를 썼습니다. **Ephesiaka(에베소 이야기)**입니다. 아마 1세기에 쓰였을 것입니다. 이 짧은 소설의 처음과 끝에서 아르테미스 제의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이 제의는 오로지 여자들이 행하고 주도했습니다. “마침 그때 그곳의 관례대로 아르테미스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도시에서 성소까지는 7스타디온(1.3km)이다. 그 지방의 모든 처녀는 가장 좋은 장신구로 단장하고 엄숙한 행렬을 지어 그곳으로 가야 했다 […]. 구경꾼의 무리, 곧 그 지방 사람과 외지 사람의 무리는 컸다. 이 축제 때 젊은 처녀들의

신랑감을 고르는 것이 풍습이었기 때문이다. 행렬은 질서 있게 지나갔다. 맨 앞에는 제의 기구, 횃불, 바구니, 향이 있었고, 그 뒤로 말과 개, 그리고 사냥과 전쟁에 쓰는 도구들이 따랐지만, 대부분은 평화로운 도구였다. [...] 행렬이 다 지나가자, 온 무리가 제사를 드리러 신전으로 몰려 들어갔다.”

소설 끝에서, 주인공들이 몇 해 뒤 에베소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씁니다. “그들은 물에 오르자마자 그 모습 그대로 곧장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가서 많은 기도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봉헌물을 드렸으며, 여신에게 비문을 새긴 판도 세우게 했다.”

아르테미스는 사실상 에베소의 수호 여신이었고, 사회의 모든 계층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도시의 이런 전체 모습을 알면 이 편지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적인 힘과 세력이 미치는 영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세력 위에 높이 들리시고 그들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21세기에도 유효한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시고, 바울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진리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 진리는 영원히 섭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도 끝도 없으신 그분을 중심으로 돕니다.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우상과 신탁과 피 흘리는 제사 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와 제물을 바치는 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권력과 돈과 성에 대한 집착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끝없는 기분 전환과 오락거리를 내놓는 디지털 세계가 더해집니다. 현대의 우상 숭배는 신들을 달래거나 부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 자신을 달래어 그의 소비 중독을 끝까지 채워 주려 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에베소서에는 이런 세상 형편을 가차 없이 분석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쓴다 해도 내용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출구를 보여 줍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서 오는 대안의 삶의 방식도 보여 줍니다.

바울은 새로운 종교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가져왔고, 그와 함께 새 사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삶을 지배하는 세력들로부터의 자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자유를 가져왔습니다.

편지의 내용과 구성

제1부: 1-3장 교리적(교의적) 부분

단락	내용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받은 구원의 자리 - 구원의 직설법	
1장	
1-14절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과 우리에게 주신 것;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뜻: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몸인 우리 교회.
15-23절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먼저 하나님 자신, 소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때 나타난 것과 같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능력.
2장	
1-10절	그때와 지금 - 하나님의 구원: 영적인 죽음에서,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구원의 자리로.
11-22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더 이상 막힌 담은 없다: 둘이 한 새 사람과 성전이 된다.
3장	
1-13절	이방인의 사도가 맡은 특별한 직분: 신약의 온 세계 교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인 “새” 하나님의 백성.
14-21절	우리가 기도하는 것: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중보와 찬양, 예수의 사랑을 아는 것.
제2부: 4-6장 실천적 부분 - 합당하게 살기	
새 사람의 일상 - 구원의 명령법	
4장	
1-16절	하나됨을 위한 권면: 몸의 은사와 지체들, 그리고 몸의 성장.
17-32절	새 사람: 전혀 다른 삶.
5장	
1-21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세상과 달리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말과 행실.
22-33절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의 결혼을 위한 본보기.
6장	
1-9절	부모와 자녀 - 종과 상전.
10-24절	하나님의 전신 갑주: 영적 전투.

인사 1:1-2

여러분에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저는 사도로서, 곧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명령을 받은 종으로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분의 뜻으로 저는 그분의 사신이 되었습니다. 수도 에베소에 있는, 또 로마의 아시아 속주 전역에 있는 성도들과 사랑받는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 마음을 담아 씁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성도인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닳을 내렸습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그분과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르지 않는 하늘의 샘에서 우리의 일상을 위한 은혜와 평강을 점점 더 많이 주시기를. 날마다. 우리가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받은 선물 1:3

함께,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자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놀라움과 감사가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분이 오늘 이미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 지금 이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 복을 누립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 안에서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거기, 하늘 세계에서.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는 이 하늘의 풍성한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삽니다. 머지않아 눈에 보이는 영광 속에서 온전히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의 복: 아들로 삼으시려고 택하심 1:4-5

크고 헤아릴 수 없이 풍성한 이 복은 우주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그분에게서 -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 비롯되었습니다. 그분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를.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이 그분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옮겨지도록. 그분의 다정한 얼굴 앞에서 그분과 함께 살도록. 사랑받는 자로서, 그분의 사랑에서 힘을 얻어, 우리는 거룩하고 흠 없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족 딸과 아들의 자리에 세우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그분의 아들을 통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그분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귀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에게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분 자신을 위하여**, 그분의 마음을 위하여. 그분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분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내어 주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늘 가족의 교제 안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밝은 빛 속에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도록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를 거기에 걸맞은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에게 주시는 것과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면, 구속, 용서 1:6-8

그러나 우리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 없이는 - 결코 그분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속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 간혀 있었고 죄가 있었습니다. 구속은 예수의 피를 통해 왔습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희생은 우리 죄를 영원히 없애 버립니다. 그때 이집트에서처럼.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불순종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그토록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은혜를 넘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그토록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분은 이 일에 대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구속하시는 은혜를 거듭 새롭게, 점점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이미 충분했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의 비밀 1:9-10

그분의 아들과 딸인 우리를 그분은 영원한 계획과 뜻에까지 참여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온 우주를 향해 무엇을 작정하셨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잃어버린 바 된 뒤에 세운 비상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고 죄를 짓기 훨씬 전부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한 뜻을 품고 계셨습니다. 이 영원한 뜻은 오늘날 몇몇 특권층만 알 수 있는 비밀이 더 이상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의 모든 딸과 아들이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세상을 위해 사랑과 복으로 가득한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루시기를 크게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빚어 온 다른 모든 시대가 지나가는 때가 옵니다. 그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분의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분에게서 복이 흘러나와 땅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분이 이끄실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 갈라져 있던 모든 것을 자기 안에서 하나로 묶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함께 있어야 할 것을 한데 모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구원을 뜻합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임재로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실 것입니다. 온 땅으로 퍼져 나가는 새롭고 더 나은 에덴이 예전에 있던 모든 것을 잊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우리의 기업 1:11-12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족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도 세워졌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제비를 뽑아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은 것처럼, 이 크고 하늘에 속한 기업, 영원한 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 이 영광스러운 때가 찬 경륜을 함께 겪도록 미리 정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향해 가는 그때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예로운 자리를 함께 나누도록 귀한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만물의 머리가 되실 그대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십니다. 이것이 지금 이미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찬미하게 하지만, 그날이 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로 데려오심으로써, 참으로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소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1:13-14

이 기업을 우리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이미 메시아를 기다리며 바라던 우리가. 그러나 오늘날 그것은 여러분, 곧 온 땅의 민족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구속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자기 소유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에 확실하게 인을 치셨습니다. 이 인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입니다. 성령은 제가 방금 말한 이 큰 기업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하고 가장 확실한 보증금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증하셔야 할 필요라도 있으신 것처럼. 그분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요. 그것은 담보와 같아서, 우리는 오늘 장차 올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언젠가 영생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의 정당한 기업을 차지하리라는 확신을. 하나님의 한없이 선하신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먼저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영예와 영광과 그분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그분을 통해, 그분을 위해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의 중보 기도 1:15-16

여러분이 살아 있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 곧 하나님의 모든 딸과 아들을 향해 여러분이 차별 없이 품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크게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복음을 전해 생겨난 모든 공동체를 향한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모든 이들을 위해서처럼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는 기도 1:17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그분 자신**을 알게 해 주시기를. 그리고 점점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개인에게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말하는 영광스러운 계획이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을 자격 없이 받은, 선하고 영광스러운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알던 모든 신들과 완전히 다르십니다. 그분의 온전한 본성과 풍성함과 영광 안에서 그분을 아십시오. 무엇보다 예수 안에서 그분을 아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여 주시며, 영원하신 분을 우리 마음에 크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이 드러내시면, 그것은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됩니다.

소망을 알기 1:18

그렇게 여러분은 빛을 받아, 마음의 눈으로, 속사람의 눈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지 분명히 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하나님의 새 세상에서 머리아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이 기업을 소유하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주 개인적인 소유입니다. 마치 그분도 기업을 받는 분이신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처럼. 성도인 우리, 그분의 딸과 아들이 그분의 기업입니다. 그야말로 공동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을 생각하면 숨이 막힐 만큼 큼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1:19-20

저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셨고 여러분을 위해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무에서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그 능력과 힘이, 우리가 기업을 차지하고 영원히 그 안에서 살게 될 때 우리에게 강력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쏟으시는 이 신적인 능력은 이미 한 번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리스도를 수치스러운 십자가 죽음에서 건져 내어 다시 살리셨을 때, 그 능력은 온전한 위력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물 위에, 자기 오른편에, 자기 보좌에, 하늘 세계에 앉히셨을 때.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사람으로서, 이 가장 높은 영예의 자리에서,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의 모든 영적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기십니다. 그들은 이 자리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자리는 오직 한 분, 메시아께만 속합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시대에 걸쳐 정해졌고 언제까지나 그대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분 앞에서 떨니다. 그리스도가 더 크시며, 모든 것이 그분 아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물의 머리, 섭정, 통치자이십니다. 지금 이미, 그리고 제가 이미 썼듯이,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교회와 그리스도 – 머리와 몸의 온전한 연합 1:21-23

하나님께서 이 높으신 그리스도를 교회에 머리로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지, 감히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곧 온 세계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공급하시는 분이요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둘은 하나의 영적이고 실제적이며 완전한 유기체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게. 더 나아가 그리스도 자신도 그분의 교회와 이렇게 연합함으로써 온전해지고 충만에 이르셨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으로 이루어진 그분의 교회와 연합하여, 이 하나됨 안에서 우주의 구석구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형편에서 찾으셨는가 2:1-3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이 장차 받을 기업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이미 그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은**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서 돌아서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죄 가운데 그분께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어둠의 통치자**에게 넘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막강한 임금과 그의 천사들은 인간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지배합니다. 그는 세계 역사의 모든 시대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는 사람들을 식민지처럼 점령하여, 그들이 참 하나님을 잊고 그분께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과 죄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이 사회에 우리 모두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최악된 욕망과 정욕을 마음껏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챙겼습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우리 죄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들이마셨지만, 살아 있으면서도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닌 본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런 삶은 오직 그분의 진노를 받아 마땅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으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 2:4-7

그러나 이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해아릴 수 없는 긍휼로 가득하십니다. 그분은 - 사탄과 그의 종들과 세상의 모든 신들과는 전혀 다르게 -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결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형편을 보셨습니다. 벗어나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형편을.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 그분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의 감옥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우리는 허물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떨어져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에서 완전히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죽음의 감옥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아를 그분이 스스로 택하신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시고 살리심으로써 우리를 끌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커서, 그 능력이 우리를 그분과 함께 생명 속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과 새롭고 실제적인 생명의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절망적인 잃어버린 상태에서의 참된 구원이요 해방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선하심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차이를 만듭니다. 받을 자격 없는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멀리 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메시아와 너무나 긴밀하게 묶으셔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늘 세계**로 올라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그곳으로. 거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앉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자기 마음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미 현실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참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왕족 딸과 아들이라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의 승리자의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자리는 언젠가 더 이상 믿음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부활 때에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영광의 몸을 받을 때에. 이 하늘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세상, 우리 주 예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은 은혜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은혜와 선하심이 그토록 풍성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을 위하여.** 그 은혜는 오는 세대와 영원에도 우리를 향해 끝이 없을 것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든다 2:8-10

하나님의 이 모든 구조 작전은 받을 자격 없는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아무것도 보태지 않았습시다. 우리는 복음에서 들은 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은 그분의 신실하심이요, 그분의 선물이요, 그분의 은사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무언가에 쓰실 수 있을 만한 일을 해 낸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걸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지으신 새 창조물입니다! 처음에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번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일들은 우리 발 앞에 놓여 행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을 이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전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오직 그분만!

가까운 자와 먼 자 - 둘 다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께로 인도되다 2:11-16

민족들인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이스라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은 무할레자라고 불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고, 할레라는 언약의 인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대 없이 살았습니다. 그분을 향한 소망도, 그분에 대한 권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시민권에 전혀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들과, 그분의 소유된 백성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들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여러분은 소망 없이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한 줄기 소망도 없이, 아니,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없이 이방 민족들의 세상에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지만,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유대인에게는 뜻밖이고, 모두에게는 받을 자격 없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족들인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곧바로 하나님의 바로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오직 메시아의 피로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살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이스라엘과 민족들 사이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사이를 가르던 것,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시고, 이 분리와 담을 이루던 율법들을 폐하심으로써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 이스라엘과 민족들을 평화 가운데 하나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자기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한 사람으로 창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 이 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분, 예수께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을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걸고, 어떤 값을 치르고? 끔찍한 십자가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으로 그분은 이 원수 됨을 그야말로 죽이고 없애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것을 그분은 십자가에서 치워 버리셨습니다.

이 소식은 퍼져 나가야 한다 2:17

십자가의 소식을 가지고 그분, 메시아는 그분의 사신들과 그분의 영을 통해 온 세상을 다니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멀리 있던 여러분, 곧 민족들에게, 그리고 가까이 있던 우리 유대인에게도,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평화와 화목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서로 간의 평화!** 이것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초대받았다 –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간다 2:18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 이스라엘과 민족들을 초대하십니다. 함께 그분께, 그분의 하늘 임재 안으로 나아오라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거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과 기쁨 확신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땅 위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던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과 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새 고향과 새 보금자리 - 새 집 2:19-22

그런데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족들인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닙니다. 더 이상 집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고향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2등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출신의 믿는 이들과 함께 그분의 하늘 집에서, 그분의 가족으로 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찾으시던 땅 위의 영원한 보금자리를 마침내 찾으셨습니다.

이 집은 이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와 사도들과 그분의 선지자들 위에. 그들은 구원 선포의 시작에 서 있었고, 부활의 증인이었으며, 주 예수와 사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맞추어지는 모퉁잇돌이십니다. **마지막 머릿돌로서 견고함을 보증하시는 분.** 그분 안에서 온 집이 완벽하게 맞추어지고 튼튼하게 연결됩니다. 이 집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완전하지만, 그래도 계속 자랍니다. 살아 있는 유기체처럼. 이 집은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 갑니다. 그 안에는 다름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거하십니다. 민족들인 여러분도 이제 그 일부입니다. 그 일은 그때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이스라엘 출신의 우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건축에 쓰이는 살아 있는 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함께 이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 가시는 성령을 통해.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것은 돌로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단 한 곳에. 이제 그분의 성전은 온 땅에 걸쳐 있습니다. 곳곳에서 날마다 살아 있는 돌들이 그분의 성전에 끼워 넣어집니다. 가로막던 담은 허물어졌습니다 -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게시되고 바울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비밀 3:1-7

저 바울은 갇힌 몸으로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저는 로마 사람들의 죄수가 아닙니다. 저는 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사람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정하십니다. 제 삶의 하루하루를. 민족들인 여러분을 위해 제가 감옥에 있습니다. 민족들인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하는 저의 유대인 동족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상 숭배의 어둠에 얽혀 있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생각해 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제게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저는 방금 몇 마디로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분의 옛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것을 알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거침없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비밀 안에 예전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족들 출신의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라는 것; 민족들 출신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곧 그분의 교회에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것; 민족들 출신의 우리가 이제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받은 약속들에도 참여한다는 것. 이제 우리가 함께 가진 모든 것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집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유일하고 믿을 만한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일꾼이며, 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제가 복음의 일꾼이 될 자격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받을 자격 없는 선물입니다. 제 안에서 역사하는 그분의 능력으로 저는 그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보냄 받은 사명을 마지막 날까지 신실하게 다하고 싶습니다.

온 세상에 선포되도록 계시된 비밀 3:8-13

제 과거를 생각하면, 저는 정말로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같습니다. 이 큰 사명을 두고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민족들인 여러분에게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을 전해야 합니다.** 제 선포를 통해 그것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대로 모두 이 비밀에 대해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열어 주신다는 것을. 그것은 창세 전부터 그분의 사랑하시는 마음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지는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아무 신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작이 없으시고 스스로 모든 것에 시작을 주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비밀의 창시자이십니다. 이 비밀은 모든 피조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의 권세들과 세력들과 통치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피조물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파괴하려 합니다. 적대적인 보이지 않는 세력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한때는 그분의 하늘 가족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력이 그분을 배반했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민족들로 이루어진, 구속받고 자유롭게 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구속의 지혜가 그들에게 드러납니다. 이 세력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영원한 뜻을 자기들이 알아차리지도 못했고 막을 수도 없었다는 것을. 그들은 자기들처럼 죄에 얽혀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오르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쁜 확신과 온전한 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분의 하늘 보좌 앞에. 우리는 하늘 세계로 옮겨졌으므로, 그 보좌는 무릎 한 번 꿇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 겨우 한 걸음 거리입니다.

이것 또한 세력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들을 지으신
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는 저의 시련 많은 형편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국 이 모든 일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비밀과 풍성함을 전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전하기 때문에. 제
섬김을 통해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섬김 때문에
제가 여기 죄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을 위한 중보 3:14-19

제가 무슨 일을 겪든, 저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은 창조주로서 모든 이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하늘의 가족들인 천사들에게도,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분은 - 창조주로서 -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기도가 향할 첫째이자 유일한 주소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그분께 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분의 **능력**을 받기를. 그분의 영광이 풍성한 만큼 그만큼 많은 영적인 능력을. 그분의 영께서 이 신적인 능력을 우리 속사람 안으로 끊임없이 흘러들게 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영혼 안에서 더하게 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자리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목소리와 많은 것들이 여러분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언제나 그분께 첫자리를 내어 드리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닻을 내릴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았을 뿐 아니라 날마다 다른 이들에게 흘러보내는 사랑, 여러분을 모든 성도,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사람과 하나로 단단히 묶어 주는 사랑입니다.

특히 함께,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모이는 여러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지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온 공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계획을 거둬들임 눈앞에 두십시오. 그 계획은 한없고 비할 데 없이 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비로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언젠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큼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거둬 깊이 감동시키고 사로잡으며 경배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뜻을 탐구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딸과 아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 차고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미 땅 위의 작은 하늘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분께 모든 영광을 - 그분의 백성이 드리는 3:20-21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바라고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도, 영원히도. 그분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있기를. 오 하나님, 주께서 지니신 영광을 우리는 오직 찬양하며 인정하고 경배할 뿐입니다. 주의 교회 한가운데에서, 주께서 기꺼이 거하시는 주의 집에서, 모든 존귀와 애정과 사랑과 경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모든 시대에. 아멘.

여기서 편지의 전반부가 끝납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넘치도록 복을 주셨는지를 다루었습니다.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전체를 뒤바꾸시는지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것이 후반부의 주제입니다. 많은 삶의 영역이 다루어지고, 이전과 이후가 나란히 대비됩니다. 우리가 이미 된 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과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 함께 믿는 형제자매와, 이웃과,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살고, 가꾸고, 지키기 4:1-3

주 예수 안에서 갇힌 저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눈에 보이게 비치도록 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 편지에서 방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온전히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분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려면 함께 사는 가운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배어 있는 태도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거들먹거리지 말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말로도 행동으로도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상대에게 생각을 바꿀 시간을 주십시오. 그의 처지가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의 약점과 잘못을 참아 주십시오. **하나님 자신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름 아닌 모든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고 그것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저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이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지기 쉽고 상처 입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귀한 보물**처럼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갈망하시는 것이며, 그분 자신의 본성과 영원한 뜻 안에 맞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을 그분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이 눈에 보이게, 실제로 살아 내는 하나됨입니다. **그것은 획일성이나 통일화가 아니고, 행사도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이어져 있겠다는 결단이요, 예수 안에서 모든 인종과 사회 계층과 성향의 온갖 다른 사람들이 조건 없이 서로 붙드는 결속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은 우리의 온 관심과 수고를 받을 만합니다. 평화의 띠로 우리는 함께 묶여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서로에게 매여 있어야

합니다. 오직 그렇게 해야 이 귀한 하나됨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좇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서 달아나지 않도록.

위대한 하나됨과 그 표현 방식 4:4-6

모든 성도, 모든 제자의 이 하나됨은 일곱 겹의 하나됨에 근거합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크지만, 우리는 그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것이 보이게 됩니다. 한 몸, 곧 새 사람. 온 세상의 모든 아들과 딸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몸.

한 성령, 하나로 이어 주시는 분 - 분열을 만드는 여러 영이 아닙니다.

한 소망, 우리를 하나님의 크고 장대한 목표로 향하게 하고 하나로 묶는 소망.

단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 모두를 위한 분, 세상의 모든 주인과 황제보다 크시며, 우리 모두가 기꺼이 섬기는 분.

한 믿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고 전해진 믿음.

한 세례가 우리의 표지입니다. 물로 받는 세례. 이 세례로 모든 제자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세력들 앞에서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러했다는 것을.

참되고 살아 계신 한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의 아버지. 이 하나됨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모든 이 위에 계시고, 모든 이를 통해 일하시며, 모든 이 안에 거하시는 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됨을 섬기는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4:7-11

저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처럼, 성령의 이 하나됨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각 사람은 이 개인적인 은사로 이 하나됨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온갖 차이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은사를 모든 제자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그분의 신적인 지혜로 각 사람에게 알맞게 나누어 주신 대로. **각자가 감당하고 해낼 수 있는 만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 은사들은 그분의 엄청난 승리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이 모든 것을 내주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저는 시편 68편을 생각합니다. 그 시편은 주님을 강한 용사로 말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바산 산, 곧 헤르몬에 올라가 그 산을 정복하시는 분으로. 강한 원수들, 바산의 황소들, 그것은 제가 이미 여러 번 말한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패배하여 사로잡혀 끌려 내려갑니다. 그들은 그분의 전리품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도 사로잡고 있던 이 세력들을 골고다의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시고 개선하여 하늘 세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그분의 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내려오셨고, 그분은 그 은사를 나누어 그분의 몸, 그분의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분의 올라가심과 내려오심, 둘 다 개선 행진입니다. 그분은 땅으로, 우리에게로 내려오셨습니다. 승리한 용사로서 왕다운 너그러움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려고.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모든 것을 채우시려고. 우주의 구석구석이, 우리의 일상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하며 또 채워질 것입니다.

활동하는 은사 - 섬김, 하나됨, 앎, 성장, 성숙, 진리와 사랑 4:11-16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신 뒤 그분의 교회를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교회에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다섯을 꼽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은사를 가진 그들의 섬김과 헌신은 모든 성도, 모든 제자가 각자의 특별한 섬김을 위해 갖추어지고 준비되도록 돕습니다. 그 섬김을 위해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각 사람이 은사를 받았고, 그와 함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은사와 사명은 다섯 가지 직분의 섬김을 통해 발견되고, 북돋아지고, 요구되어야 합니다.

이 다섯 은사의 섬김은, 성령의 하나됨에 속한 모든 사람의 섬김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지키는 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땅 위에 있는 동안, 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은 그 모든 지체, 그 모든 부분이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힘을 쏟고 참여하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살아 내야 합니다. 세움과 성장의 목표는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직 가는 길 위에 있고, 부분적으로 압니다. 때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릇된 확신을 붙들며, 하나님의 아들을 충분히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은사를 가진 다른 이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장성한 사람의 온전한 성숙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정해진 목표입니다. 이 어른 됨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미숙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려면 갖추어지고 자라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거나 가늠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에서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키 없이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돛단배와 같습니다. 그릇된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의 바람이 우리를 휩쓸어 갈 수 있습니다. 이 그릇된 가르침은 의도적인 속임수인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바로 미숙한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꾸며 낸 교활한 오류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아기와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참되게 살고 진리를 굳게 붙드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잘난 체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그분, 곧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 가는 데 보탬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에게서 다시 온몸이 자랍니다. 이 하늘의 중심부에서 영적으로 공급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제자로 이루어진 몸이 완벽하게 맞추어지고 연결됩니다. 영적인 관절, 곧 공급하는 모든 이음매를 통해, 근육과 힘줄을 통해 몸이 받쳐지고 공급을 받습니다. 모든 제자는 받은 은혜를 따라 몸의 성장에 이바지합니다. 아니면 받은 은혜를 자기만 간직하고 나누지 않는다면 이바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 지체, 각 제자가 섬김을 통해 이 몸에 가져오는 것이 전체의 진보와 성장을 이룹니다. 이것은 온 땅에 걸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리고 전체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전체를 그분의 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모든 몸이 자라기 위해 스스로를 세우고 생명을 유지하며 제 할 일을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 가는 그리스도의 몸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온 세계 교회에 해당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우리가 그 몸과 그 하나됨을 보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없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4:17-19

이 사람과 됴은 여러분이 한때 속했던 민족들처럼 더 이상 살지 않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무의미하고 피상적인 인생관을 철석같이 확신하며 복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와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이해는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했듯이, 죄 가운데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며, 그 확신에 있어서는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 시멘트처럼 굳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것에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선하고 합당하고 유익하고 옳은 것에 대한 모든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 그들이 자기를 실현한다고 여기는 것은 거리낌 없는 방탕이며,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 세계 안에 선물로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비틀어 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복과 기쁨을 위해 지으신 것이 더러움으로 뒤틀리고, 만족을 모르는 탐욕과 욕심으로 소비됩니다. 그래서 다소간 이렇게 사는 민족들은 무의미와 공허, 절망, 속박, 중독, 그리고 잃어버린 상태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는가? 4:20-24

그런 삶에서 우리를 건져 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은 여러분과 정반대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진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행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말씀은 전혀 다른 삶으로 이끌니다. 우리의 옛 삶, 민족들의 삶은 우리의 **옛 사람**에 속합니다. 그 옛 사람을 우리는 낡고 해지고 더러운 외투처럼 벗어 버렸습니다. 이 옛 사람은 그가 따라 사는 온갖 속이는 욕망 때문에 썩어 없어질 물건처럼 부패합니다. 그는 이미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둡니다. 그는 자기가 섬기고 경배하는 것을 닮아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생각과 삶의 태도 전체가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생기를 얻습니다. 서로의 교제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새 사람**처럼 살도록. 이제 여러분은 속에서부터 선을 택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은 새 사람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새 옷처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입니다.** 오직 그 때문에 이 새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에 온전히 맞게 삽니다. 곧 그분의 **진리와 의와 거룩함**에 맞게.

새로운 삶은 어떤 모습인가 4:25-32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토록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 작고 큰 일들과 상황과 행동 속에서 드러납니다. **거짓말**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과 언제나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 꾸며 보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몸의 지체처럼 유기적으로 서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형제자매로서.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날 때에는 죄를 짓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분노**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는 자주, 아니 대부분 죄가 됩니다. 너무 격하고 지나치며 정당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맞대 놓고 화를 냈는데 그대서는 안 되었다면, 어떻게든 가장 빠른 기회를 찾아 그것을 바로잡고 화해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열어 주고, 그가 쓴 뿌리와 더 많은 죄악된 분노를 뿌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도둑질**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남의 것을 가져가는 대신, 일해서 벌어들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손을 도둑질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대로, 꼭 필요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데 쓰십시오. **어떻게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도 조심하십시오. 썩고 추하고 상처를 주거나 사랑 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히려 용기를 북돋고,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드러내는 좋은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옛 사람처럼 무언가를 행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도록 도우려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위에 찍힌 **하나님의 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속의 날 - 우리가 기업을 차지하는 날 - 에 이르리라는 우리의 확신ियो 보증이십니다. 이 성령은 죄에 관해서는 아주 민감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분의 바로 앞에서 그분이 우리 삶에서 없애려 하시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므로 그분이 새 사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생명을 살아 냅시다. 우리는 이미 된 그대로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옛 사람들이 서로 사는 삶은 흔히 쓴 뿌리, 분노와 노여움과 고함과 서로를 향한 비방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그저 악합니다. 이제 서로에게 전혀 다르게 대하십시오.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친절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고통과 상실을 겪을 때 공감을 보이고 세심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는 이제 언제든지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 말했듯이,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갚을 수 없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용서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분의 은혜.

그리스도인에 대해 “아버지를 꼭 닮았다 – 예수를 꼭 닮았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5:1-2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심장이 여러분 안에서 뛰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또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드러납니다. 사랑 안에서 삽시다.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사랑이 되게 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는 제물로 죽음에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 사랑의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의 사명은 하나님께 드린 온전한 제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두 관점에서 본 성 5:3-10

이제 우리 사회에, 예배소에 있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성관계, 성적인 방종, 음란물, 그리고 탐욕.** 이것을 철저히 거부하십시오. 생각에서부터! 대화에서도. 성을 이렇게 마음대로 즐기는 것은 제가 방금 말한, 자신을 주고 내어 주는 사랑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희생자가 됩니다. 이런 종류의 성에 대해 농담하거나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 아니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성도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에 관한 모든 생각과 말을 몰아내십시오. 이 공허하고 무의미한 삶이 다시는 여러분을 따라잡지 못하도록. 유머와 재치 있는 농담은 죄가 아니지만, 부끄러운 일에 대한 더러운 농담과 어리석고 공허하고 피상적인 수다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는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오직 감사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혼인 언약 밖에서, 또는 그것 없이 자유로운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돌이킴과 회개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 주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성적 욕망에 굴복하고, 마치 그것이 자기가 경배하는 우상인 것처럼 그 안에서 삽니다. 그들은 - 여러분과는 달리 - 하나님의 미래에서 아무 기업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이 분명한 입장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마치 그 모든 것이 그리 나쁘지 않고 심각하게 여길 일이 아닌 것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깨어 있고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욕망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마음껏 누리고 자기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그렇게 뜻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은 놀랍고 거룩하며 결혼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거리낌 없이 성적 욕망을 따르는 사람은 철저히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을 책임과 신실함 속에서 살지 않을 때 그런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외로운지를 이미 살아가면서 느낄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왕적 통치 안에서 우리의 기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 속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인생관에 동조하거나 그것을 지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똑같이 살던 때는 이제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하늘 빛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십시오. 보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의 행태를 거부하십시오. 하늘의 빛은 우리 삶에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 **여러분은 이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묻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지를 먼저 묻지 마십시오.**

다시 넘어질 수 있다 - 하나님의 빛으로 돌아가는 길도 있다 5:11-14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런 행위로 다시 넘어지면, 그것을 침묵으로 덮거나 그저 묵인함으로써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한편이 되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을 분명하게 이름 붙여 말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일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의견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빛이 이 거룩하지 않은 행위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반드시 그들에게 해가 될 것임을 일깨워 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옛 삶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면, 잘 알려진 이 말을 간절히 외쳐 주십시오. **깨어나라**, 너의 영적인 잠과 몽롱한 상태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으니.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너를 비추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곳곳에 도사린 위험 –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5:15-17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노리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잘 살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 없이, 순진하게, 피상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처럼, 자기 자신과 자기에게 닥치는 일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아래에서 살피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우리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립 지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사회 속 사람들 가운데 삽니다. 그 사회는 우리가 다시 자기들에게 속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을 사서 쓰십시오. 우리가 사는 날이 해아려져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우리 주님이시요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뜻만이 유일하게 중요합니다. 오직 그분의 뜻을 이룰 때에만 우리는 시간을 사서 쓸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기 5:18-21

술에 취하거나 술로 흥청거리지 마십시오. 성찬을 위해 함께 모일 때에도. 그로 말미암아 제가 말한 죄들이 흔히 일어납니다. 술에 취하는 사람은 거리낌이 없어지고 맑은 정신과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아니면 피곤해지고 수동적이 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 대신 함께 모일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 주님께 노래하고 환호함으로써, 성령을 통해 서로를 일깨우고 채워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악기를 연주하십시오. **시편과 신령한 노래로 드리는 찬양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늘의 기쁨으로 채우기를.** 그렇습니다.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마음속으로, 그러나 소리 내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날마다 그 은혜를 맛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일하게 합당한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서로 위에 군림하지 마십시오. 자기 뜻을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 머리와 몸 - 남편과 아내 - 존중과 사랑 5:22-33

아내들이여,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혼인 언약에서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께서 그분의 아내인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분의 몸의 머리이신 것과 같습니다. 메시아는 그분의 몸, 곧 모든 제자로 이루어진 그분의 교회의 구원자이십니다. 교회가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그 남편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의 하나됨을 통해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혼의 하나됨이 아내들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들이여, 그것은 여러분이 주인이 종을 다스리듯, 혹은 통치자가 백성을 다스리듯 아내를 다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메시아께서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죽기까지. 그분은 거기까지 가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토록 컸습니다.** 그분의 목표는 교회를 비참함에서 건져 내어 자기에게로 이끄심으로써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의 말씀이라는 물로 씻으심으로써 교회를 모든 죄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그 일 안에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분은 사랑하시는 신부를 신랑이신 자기 앞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신부에게 주신 온전한 아름다움과 영광 가운데. **신부에게는 그녀가 예전에 어디에서 왔는지 떠올리게 하는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이제 거룩하고 흠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쓸까요? 남편들이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돌볼 빛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하나됨은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몸, 아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을 만큼 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기적인 속셈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터무니없는 일일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몸을 돌보고 먹입니다. 메시아께서 그분의 교회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혼인 관계가 어떻게 생겨나도록 생각하셨는지 씁니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온전히 독립하고 더 이상 부모에게 기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아내와 결합하여 새로운 하나를 이룰 것입니다. 이 둘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 그것은 참으로 거듭 놀라게 되는 큰 비밀입니다. **더 큰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실제적이고 깊은 본보기 앞에서, 남자 여러분은 각자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랑과 존중이 날마다 여러분의 결혼을 이끌어야 하며,** 그렇게 결혼을 지켜야 합니다. 오직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온전히 꽃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안에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은 결혼의 모습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6:1-4

저는 어른들에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때로 어렵고 부모도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이 좋고 옳은 일입니다. 모세는 십계명 가운데 하나를 자녀들에게 바쳤습니다. 그것은 약속이 딸린 유일한 계명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아버지들이여, 자녀들이 기꺼이 순종하도록 사랑과 세심함으로 자녀를 기르십시오.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 주고 증명하십시오! 지나친 엄격함과 요구로 그들을 낙심시키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반항한다면, 그 원인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보기가 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좋은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그들을 기르십시오.

종으로서 하늘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6:5-8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들이여, 여러분의 땅의 상전들에게 온 힘을 다해 순종하십시오. 모든 것을 따지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하십시오. 그러나 믿는 상전이든 믿지 않는 상전이든, 그들의 칭찬을 얻으려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마음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직접 하듯이, 기꺼이 좋은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일을 헛되이 하는 것이 아님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보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에 상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가 새 세상의 영광 속에서 기업을 차지할 때에는 반드시. 물론 이것은 모든 제자에게 해당됩니다.

땅의 주인과 하늘의 주님 6:9

믿는 상전들과 종을 거느린 사람들이여, 여러분도 여러분의 종들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별로 위협하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을 부당하게 위협하는데, 그들에게는 하늘에 그들 편에 서 계신 크신 주님이시요 스승이 계십니다. 게다가 그분은 여러분의 주님이시요 스승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사람의 외모도 사회적 지위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권리나 은혜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협하지 마십시오. 형제들에게는 더더욱.

끝까지 이어지는 전쟁: 강해지십시오 6:10

이제 서서히 끝을 맺으려 합니다. 저는 우리가 날마다 서 있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단단히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임할 때까지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러므로 먼저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주 안에서 강해지라고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그분의 크신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한 그 힘입니다. 이 힘은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눈에 띄지 않고, 화려하지 않으며, 심지어 약하다고 느끼는 가운데 경험되더라도.

영적 전쟁을 위해 무장하다 6:11-1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추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마귀의 간계와 속임수와 술책을 대적하려면 우리에게 그 갑주가 필요합니다. 마귀는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교회는 그의 첫째 공격 목표입니다. 그가 이미 그리스도께 패배했는데도.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없으면 우리는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진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악하고 적대적인 세력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존재들의 큰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께 지음 받았을 때의 여러 계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귀의 지휘 아래 자기들을 지으신 분께 반역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신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들은 통치자들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영적이고 죄악된 어둠 속이 그들의 집입니다. 우리를 향해 오직 악한 것만 꾀하는 악의 영적 세력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몇 가지만 골라 입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는 이 세력들이 특히 기를 쓰고 덤비는 악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대적해야 하며, 또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싸움이 또 한 번 지나가고 나면, 해이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굳게 서서, 좀 더 잠잠한 시기에 갑자기 기습당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의 갑주 6:13-17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하나의 전체를 이루며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모두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갑주는 제가 이 편지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쓴 모든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허리의 **띠**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진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우리 삶 속의 진실함과 실천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호심경**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살아 내기도 하며 그분께 합당한 일을 합니다. 어떤 지형에도 견디는 튼튼한 **신발**은 우리가 받아들인 평화의 **복음**을 아직 악한 세력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우리의 준비와 열심을 보여 줍니다. **방패**는 우리가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두는 **믿음**과 신뢰를 나타냅니다. 그분은 언제나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의인은 또한 끊임없이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그렇게 해야 우리는 악한 자의 지독히 악하고 불붙은 화살을 막고 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원**을 말하는 **투구**로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일도 속합니다. 생각하고 듣고 보는 것이 상하지 않도록. 구원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날마다 구원을 받으며, 언젠가 구속의 날에 그분의 나라 안으로 구원을 받아 들어갈 것입니다. 아무도 이 확신을 우리에게서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겹으로 자신을 방어하십시오. 그러나 싸움에서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십시오. 이 무기는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 곧 성령을 통해 살아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에서 우리의 큰 본보기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또 하나의 무기: 쉬지 않는 기도와 간구 6:18-20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무기일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절한 간구로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혼자서, 그리고 함께. 소리 내어, 그리고 조용히.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모자라거나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십시오. 모든 성도와 그들의 걱정과 어려움을 위해. 그러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좋은 소식을 알맞고 적절한 말로 알라듣기 쉽게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담대하도록. 저는 이 편지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한 복음의 비밀을 어디서나 전해야 하고, 또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앉아 있지만, 바로 그 일을 위해 저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제게는 중요합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맺는 말 6:21-24

이 편지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전해 줄 것입니다. 그가 제 형편을 여러분에게 알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점점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함으로써 그분 곁에 머무는 이들에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고백하는 이들에게.